



그리스 한인교회
Grace Community Church

Cambodia T) 855-70-774-235

E-Mail : phs1406@naver.com

캄보디아 김종현 김현숙 선교사 2015년 7월 기도편지



할렐루야!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올해는 밴쿠버의 여름도 무척 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곳 캄보디아는 우기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예년과 달리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모두들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비(스콜)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보게 되는 건물 공사장과 수 많은 오토바이와 차들, 그리고 툽툽이와 자전거로, 모든 탈것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도로를 지나가며, 온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의 권세 아래 누르고 두려움 속에 살도록 하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물질과 부를 최고의 목표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마다 집은 텅텅 비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 공장으로, 가게로 돈벌이를 내 보내는 추세여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소수의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 이 땅을 위해 부르짖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제 2기를 출범하고 이제 중반을 넘어 서면서 그 간의 사역을 정리해 봅니다. 프놈펜 외곽에 클리닉을 오픈하고 주민들과 교체 하는 가운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틈틈이 아웃리치를 통해 인근지역을 답사하였습니다. 캄퐁스프, 다케오, 꺄달 주를 중심으로 한국인 선교사님들 및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클리닉과 함께 개설한 침구교실을 통해 현지 전도사들과 청년들 6-7명과 수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매주 두 번, 먼 곳으로부터 달려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어둑어둑해 지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먼 길을 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실 날을 기대해 봅니다.

클리닉 사역에서 학교 사역으로

클리닉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학교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일년 반 동안 기도하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유니온 기술학교에 함께 할 동역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들,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등은 이미 중의학이 자리잡고 한방학교들도 있으나 캄보디아는 열악한 의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방학교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독 한방학교를 열어 주셔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 많이 오픈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빌 2:13)” 이시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놀랍게 체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캄보디아의 한방학교’ 시작에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함께 부족한 저희를 동참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기도제목을 읽어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젊은이들이 입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동역하는 유니온 기술학교가 교육부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아웃 리치와 과학캠프를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20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세워 오늘날 한국교육에 이바지 한 것처럼 캄보디아의 교육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든든하게 서 가도록, 그리하여 온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여 모든 부패와 우상숭배가 척결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학교의 모든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재정적 필요들이 순전히 채워지고 진행되어서 학교가 잘 출발될 수 있도록



깜퐁스푸주 갈릴릴 고등학교에서의 주말 의료 아웃리치



함께 동역하게 된 유니온 기독교 기술학교